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 스미토모생명, 베트남 진출 본격화

□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회사인 스미토모생명은 본격적인 베트남 생명보험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최대 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.

- 스미토모생명과 베트남 최대 은행인 국영 농업은행은 이미 합작에 필요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최근 베트남 당국에 설립인가를 신청함.
-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, 양사는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절반씩 출자한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,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로 함.
- 스미토모 생명은 생명보험 사업에 대한 시스템 및 제품개발 노하우를 농업은행에 제공하고, 현지 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수를 지닌 농업은행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됨.
- 스미토모생명은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 최대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베트남 방카슈랑스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.

□ 스미토모생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은 성장이 정체된 자국 보험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의 진출이 절실하다는 현실 인식에 기인함.

- 일본의 생명보험 시장은 저출산,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가구당 평균 연간 납입 보험료가 20년 전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, 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.
- 약 600억엔 규모(2008년 수입보험료 기준)로 외국인이 약 70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보험시장에 한국과 프랑스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신규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스미토모생명의 이번 베트남 진출은 2006년 다이이치생명 이후 일본 생명보험회사로는 두 번째임.
- 스미토모생명은 그동안 중국에 국한되었던 해외시장 진출 지역을 베트남과 같은 유망한 신흥국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.

(스미토모생명 홈페이지, 요미우리신문, 10/27)